

돌탑과 와불에 투영된 민중의 삶과 시대 정신

정희승 개인전 '운주로 가는 길, 내일까지 무등갤러리'

미륵의 상징 통해 현실의 염원 담아낸 작품 65점 선봬

화순 운주사는 천불천탑, 돌부처, 와불과 같은 특이한 조형 요소 덕분에 지역 작가들의 작업에서 자주 다뤄지는 장소다. 무등갤러리에서 오는 4일까지 열리는 정희승 개인전 '운주로 가는 길' 역시 그 운주사를 소재로 한다. 다만 이번 전시는 유적의 형상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작가가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민중의 삶과 시대의 고통을 운주라는 공간 안에 겹쳐 풀어낸 작업들로 채워졌다.

전시장에는 총 65점이 걸렸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최근 3~4년 사이 집중적으로 제작한 신작들이다. 오랜 시간 간헐적으로 이어온 운주사 작업의 궤적이 한 공간에 모였다.

65점 가운데에는 오래전 운주사를 그렸던 초기 작품 한 점도 함께 놓였다. 과거의 시선과 최근의 작업이 한 전시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작가 운주사를 본격적으로 작업하게 된 계기는 2021년 오월미술관에서 선보인 '나는 너다' 전시 이후다.

그는 당시 전시가 "광주 5월과 관계가 되고 민중의 삶, 너의 고통이 나와 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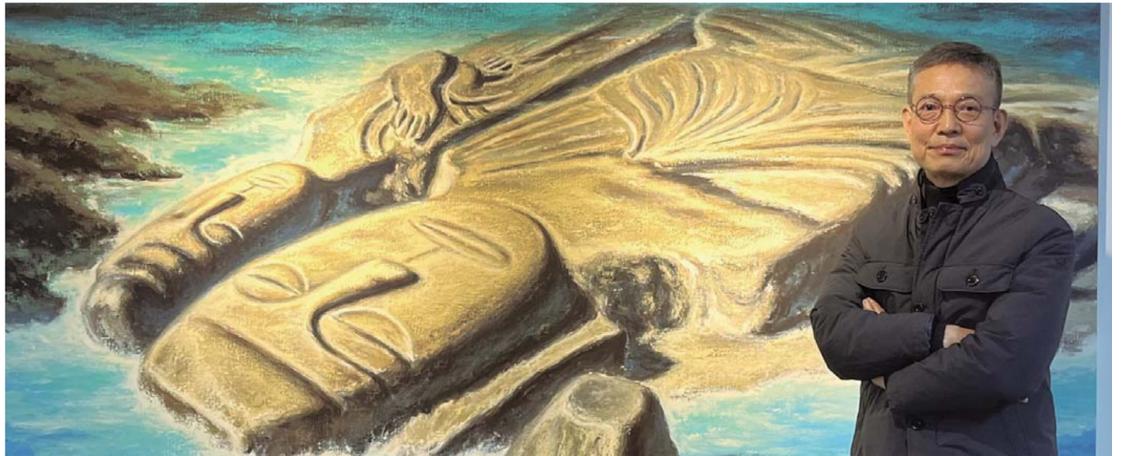
하지 않다는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그 문제 의식을 유지하되 작업의 외연을 넓히는 과정에서 운주사를 떠올렸다는 것이다.

2022년부터 이어진 이번 연작은 "그 시절을 나름대로 버티는 방법"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으로 힘든 시간이 이어지던 시기, 그는 운주사를 통해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끌어안는 길을 찾았다.

대표작 '미륵바다'는 그 맥락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역사 왜곡과 경제적 파탄 등 어지러운 현실을 배경으로, 그는 운주사의 와불을 바다에 누운 미륵의 형상으로 옮겼다.

'와불이 세워지는 때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전설에서 출발한 작업으로, 고통의 바다가 해원의 바다로 바뀌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바다 위에 누운 부처의 형상은 단순한 설화의 재현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를 견디는 이들의 바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작가의 운주사 작업들은 종교적 교리를 강조하기보다는, 민간 신앙에 가까운 미륵의 상징을 통해 현실의 염원을 담아낸 작업이다.



작품 '미륵바다' 앞에 선 정희승 작가.

작가는 미륵 신앙이 지닌 민중적 성격에 주목한다.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마음, 지금의 고통을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바람이 운주라는 장소와 겹쳐진다는 설명이다.

100호 세 점을 이어 붙인 '운주, 구름배' 역시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운주 '움직이는 배'로 해석해 민중의 염원을 싣고 나아가는 풍경을 펼쳐 보인다. 운주라는 이름에 담긴 여러 의미 가운데 '움직이는 배'와 '구

름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을 가져와 화면에 옮겼다. 개발 이전 운주사의 모습을 담은 장면들은 돌탑과 논, 불상과 마을이 함께 놓여 있던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대작에 앞서 그는 목탄과 소묘, 수채로 구도와 색을 먼저 점검한다.

특히 운주골 중앙의 석조불감과 주변 석불군을 담은 '진광불회-석조불감' 연작은 연필 작업에서 출발했다. 작은 화면에서 구도와 균형을 점

점한 뒤 점차 규모를 키워가는 방식이다. 화면의 구조를 먼저 세우는 일은 그가 작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조형적인 완속함만큼 내용과 주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중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작업이어야 한다고 보고요. 특정 주제에 한정되기보다, 앞으로도 그런 균형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형식과 내용,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게 제 과제라고 생각해요." /최명진 기자

겨울 깨우는 낭만주의 선율

광주시향 '보헤미아의 봄'...오는 20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겨울의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생명력과 낭만주의 음악이 지닌 따뜻한 서정성을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됐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40회 정기연주회 '보헤미아의 봄'을 개최한다.

낭만주의 정점이라 불리는 차이콥스키와 드보르작의 걸작을 통해 계절의 변화와 맞물리는 드라마틱한 음악적 여정을 선사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연주한다. 1악장 도입부의 강렬한 호른 선율과 피아노의 웅장한 화음은 겨울을 뚫고 솟아오르는 생명력을 상징하며, 화려한 기교와 서정성이 어우러져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

사한다. 이날 무대는 강렬한 타건과 섬세한 감수성을 겸비한 피아니스트 박종해(사진)가 협연한다.

박종해는 깊이 있는 해석과 탄탄한 테크닉을 바탕으로 작품의 구조를 명확히 드러내는 연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협주곡 레퍼토리에 뛰어난 음악적 집중력과 오케스트라와의 유기적인 호흡으로 호평을 받아왔으며, 낭만주의 작품에서 보여주는 깊은 서정성과 폭발적인 에너지는 그만의 강점으로 꼽힌다. 이번 무대에서는 차이콥스키 특유의 뜨거운 정열과 낭만성을 한층 극대화한 연주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부에서는 드보르작의 교향곡 제8번을 연주한다. 드보르작이 고향 보헤



미아의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작곡한 작품으로, 그의 교향곡 중에서도 가장 독창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곡으로 평가받는다.

이 작품은 기존의 무거운 비극적 교향곡 전통에서 벗어나 체코 민속 선율을 바탕으로 한 전원적 평화로움과 희망찬 에너지를 담고 있다. 특히 새들의 지저귀는 연상시키는 플루트 선율은 '봄'의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생명력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티켓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다.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또는 예스24 티켓 홈페이지. /최명진 기자

가·무·악 어우러진 전통 국악의 향연

7일 남도국악원 상설공연

국립남도국악원이 2026년 첫 상설공연으로 가·무·악이 어우러진 종합무대를 선보인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7일 오후 3시 국악연주단의 '국악의 향연'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새해를 맞아 준비한 가·무·악 종합공연으로, 전통의 멋과 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연은 수명이 천년만년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합주 '천년만세'로 문을 연다. 이어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상봉 대목'을 통해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풀어낸다. 어사가 돼 남원에 돌아온 이몽룡이 월매(춘향의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을 노래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무용 '승무', 독주 '상량산



남도민요 '달맞이', '액뱀이타령' 공연 모습

풀이'가 차례로 무대를 이어간다. 정적인 율림과 역동적인 춤사위가 교차하며 전통 예술의 다양한 결을 보여준다. 후반부에는 정월대보름에 맞춰 남도민요 '달맞이'와 '액뱀이타령'을 선보인다. 화려한 의상과 양손에 부채를 들고 추는 '부채춤'이 무대를 수놓고, 마지막으로 힘차고 빠른 경상도 농악의 특징을 살린 사물놀이 '영남농악'으로 공연의 흥을 끌어올린다.

이번 공연은 올해 첫 상설공연으로, 박정경 국립남도국악원장이 사회를 맡아 해설을 곁들인다. 관객들이 작품의 의미와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보다 깊이 있게 무대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 또는 전화(061-540-4042, 장악과)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광주 안의 유일한

친환경 수목장

✓ 아름다운 자연

✓ 365일 관리

✓ 가족구성 가능

✓ 사용기한 없음

✓ 전문 이장

✓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